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자료	보다나은 정부

8월 2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8. 27 (월)	담당부서	기획재정담당관실
담당과장	신희동과장(044-203-5520)	담 당 자	김상우 사무관(044-203-55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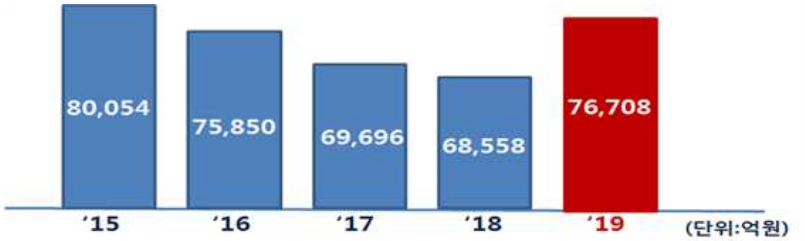
내년 산업부 예산 7조 6,708억원, 11.9% 확대 편성

- 내 삶의 플러스 2019 산업활력 예산 -

- 5대 신산업, 에너지전환, 통상대응, 지역경제 분야 확대 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더합니다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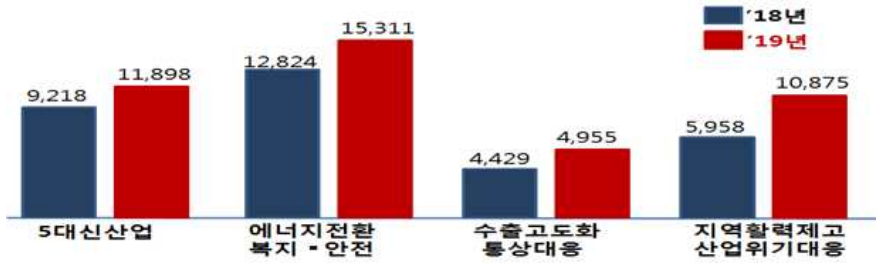
□ 산업통상자원부의 **2019년 예산안**(정부안)은 **7조 6,708억원**으로 **금년(68,558억원)**보다 **11.9% (8,150억원) 증액 편성**하였다.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산업부 예산은 '15년을 기점으로 **지속 감소하는 추세**였으나, 내년 예산은 **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**한다.

< 그림1. 산업부 소관예산 연도별 추이 >



○ 5대 신산업 등 **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,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**, 글로벌 **통상분쟁 대응**과 **지역균형발전**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**실물경제 활성화, 경제활력 제고**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.

< 그림2.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 (단위: 억원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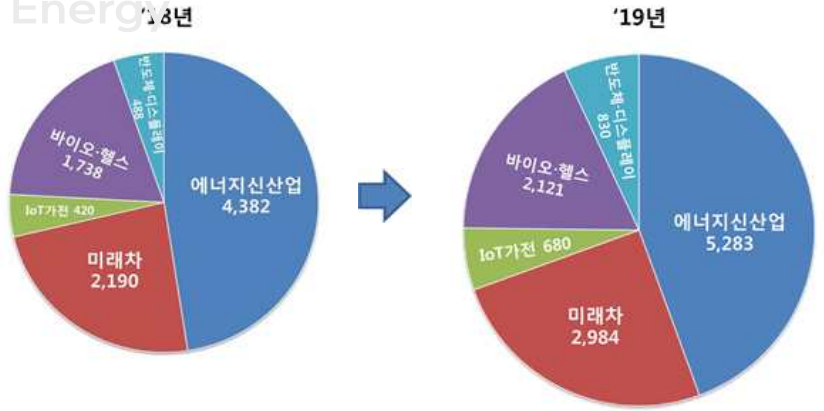
❶ 5대 신산업 등 전략분야 투자 확대

□ 우선, **4차 산업혁명, 에너지전환, 고령화**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, **주력산업의 기술력·성장성, 국민 체감도를 감안**하여 선정된 **에너지신산업, 미래차, IoT가전, 바이오·헬스, 반도체·디스플레이**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**투자를 과감히 확대**한다.

○ 내년도 **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1,898억원**으로 금년(9,218억원) 대비 **29.1%를 증액 편성**하였고, 이는 전체 **R&D 예산** (31,766억원)의 **37.5% 비중을 차지**한다. 산업부는 '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**50%까지 늘려나갈 계획**이다.

< 그림3. 5대 신산업 예산 편성 및 비중변화 추이 >

구분 (억원)	'18년 예산 (A)	19년 예산 (B)	증감(B-A)
① 에너지신산업	4,382	5,283	901 (20.6%)
② 미래차(전기·자율주행)	2,190	2,984	794 (36.3%)
③ IoT가전	420	680	260 (61.9%)
④ 바이오·헬스	1,738	2,121	383 (22.0%)
⑤ 반도체·디스플레이	488	830	342 (70.1%)
합 계	9,218	11,898	2,680 (29.1%)



□ 한편,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**수소경제 기반 조성**을 위한 **수소 R&D 실증사업, 생산거점 구축**사업을 신설하고, **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**을 위한 인력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.

* 수소생산기지 구축(신규) : (19년안) 150억원 / 수소융복합단지실증(신규) : (19년안) 20억원
* 글로벌인재양성(혁신성장·에너지, 신규) : (19년안) 90억원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8-28 09:46:40

❷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

※ (18년) 12,824억원 → (19년안) 15,311억원 (2,487억원, 19.4%↑)

□ 과거 석탄·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**융자·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**하고, 특히 **농가 태양광,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**를 지원하여 **국민체감도**를 높일 계획이다.

*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: (18년) 1,900억원 → (19년안) 2,883억원
*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: (18년) 1,760억원 → (19년안) 2,670억원
* 신재생핵심기술개발지원 : (18년) 2,079억원 → (19년안) 2,179억원

○ 금년과 같은 폭염에 대비하여 **에너지바우처를 '냉방'시에도 사용**할 수 있도록 **신설**하고, **서민층 가스시설** 개선, **저소득층에너지효율** 개선, **노후변압기교체** 지원 등 **에너지안전·복지**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.

* 에너지바우처 : (18년) 832억원 → (19년안) 937억원
* 서민층가스시설개선 : (18년) 97억원 → (19년안) 199억원
* 노후변압기교체지원(신규) : (19년안) 56억원

❸ 수출 고도화 및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원

※ (18년) 4,429억원 → (19년안) 4,955억원 (526억원, 11.9%↑)

□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하에서도 유망 신산업으로의 **수출 고도화**와 **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**을 위해 수출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.

* '수출역량강화'부문 예산 : (18년) 3,517억원 → (19년안) 3,680억원
  - 무역보험기금출연 500억원, 수출경쟁력강화 356억원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,462억원 등

○ **글로벌 통상 현안에 철저히 대응**하고, 신남방·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(ODA) 예산 등을 **대폭 증액**한다.

* 통상분쟁대응 : (18년) 35억원 → (19년안) 92억원
*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(ODA) : (18년) 137억원 → (19년안) 233억원
*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(ODA) : (18년) 130억원 → (19년안) 151억원

❹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

※ (18년) 5,958억원 → (19년안) 10,875억원 (4,917억원, 82.5%↑)

□ **노후화된 산업단지**를 **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**하기 위해 내년에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에 **4천억원 이상**을 투자하여, **창업과 혁신생태계, 우수한 근로·정주환경**을 갖춘 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.

* 산업단지환경조성 : (18년) 566억원 → (19년안) 3,365억원
*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: (18년) 591억원 → (19년안) 519억원
* 산학융합지구 : (18년) 101억원 → (19년안) 150억원

○ 한편, **지역경제 활력제고**를 위해 **지방이전·신증설투자와 국내복귀기업**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**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**하는 한편, 혁신도시 중심의 **혁신클러스터 활성화** 및 **지역혁신생태계 구축** 등 **지방의 신성장동력을 확충**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갈 예정이다.

* 투자유치기반조성 : (18년) 474억원 → (19년안) 871억원
* 지역투자촉진 : (18년) 765억원 → (19년안) 1,411억원
*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: (18년) 441억원 → (19년안) 724억원

□ **자동차, 조선업종 구조조정**에 따른 산업·고용위기지역과 업종의 **단기적 충격을 완화**하고, **기업유치·대체보완산업 육성** 등 **지역경제활력 회복**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.

* 자동차조선 퇴직인력 재취업지원 : (18년 본예산+추경) 203억원 → (19년안) 265억원
* 대체보완산업 육성분야 (18년 추경) 257억원 → (19년안) 557억원

try of Trade,
try and Industry

□ 한편, 19년 예산안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, 지역균형발전,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**일석삼조(一石三鳥) 효과 극대화**를 위한 **"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"**을 확대 편성하였다.

○ 산업부는 **산업단지 환경조성,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,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,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** 등 **생활 SOC 사업을 차질없이 적기 집행**하여 **"사람중심 경제"를 적극 뒷받침**할 계획이다.

* 4개 분야 예산규모: (18년) 4,610억원 ➡ **(19년) 9,648억원 (5,038억원, 109.3% 증가)**

□ 정부가 마련한 『**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**』은 8월31일(예정) **국회에 제출**되어, **국회 상임위·예결위 심의, 본회의 의결**을 거쳐 **금년 11월말**(법정기한:12월2일) 확정될 예정이다.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상우 사무관(☎ 044-203-55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8-28 09:46:40